

Corporate | 김영주 LAB 파트너스

코퍼릿과 금융 양날개로
'M&A 6~8위' 견인 담보

김영주 변호사는 대형 로펌인 세종 금융팀에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해 사모펀드와 M&A 분야로 업무영역을 넓힌 케이스다. 기업법무의 양대 축인 코퍼릿(corporate)과 금융의 양날개를 겸비한 주인공으로, 이러한 경험을 살려 특히 국내외의 다양한 사모펀드를 대리한 M&A 거래에서 비상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펀드의 설립, M&A, 인수금융 등 거래의 진전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가 그가 이끄는 법무법인 LAB 파트너스의 강점으로, LAB 파트너스는 한국 M&A 리그테이블에서 줄곧 대형 로펌들 다음의 6~8위를 마크하고 있다.

2020년 들어서도 코로나19로 전반적인 투자활동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케이스톤PE의 세아메카닉스 인수, 해외결제서비스 1위 기업인 엑삼베이의 국내 사모펀드 투자유치, 컴투스의 동양온라인 인수, 풍성의 서평택탱크터미널 매각 등 사모펀드를 대리한 투자 또는 사모펀드를 상대방으로 하는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아이에스그룹이나 풍성그룹과 같은 중견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으로 고객군을 확대하는 가운데, 아이에스지주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아이에스동서 등을 포함한 아이에스그룹에선 그룹의 M&A 및 투자 관련 전담 자문변호사로 활약, 주목을 받고 있다.

투자 전담 자문변호사로 활약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만큼 업무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그에게 쏟아지는 고객들의 평가. 그는 이런 강점과 함께 많은 경험이 축적된 파트너 변호사가 손수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직접 딜을 수행하는 부트크 로펌의 장점을 살려 설립 3년차 LAB 파트너스의 빠른 발전을 이끌고 있다.



위기관리 | 이영상 올촌

다국적 기업 상대
크로스보더 변론 독보적

법무법인 올촌의 이영상 변호사는 검찰에 있을 때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정책기획단 등 수사와 기획부서의 주요 보직을 경험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근무한 매우 잘 나가는 검사였다.

기업형사 분야에서의 활약이 주목되지만, 그는 올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통적인 역할을 뛰어넘는 위기관리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어렸을 때 해외에서 생활해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검사 시절의 경험을 통해 수사와 정보, 국회, 언론 등을 통섭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목을 갖춘 그는 특히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사와 수사 사건 등을 전담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다국적 기업 특수성 한국 실무에 연계

무엇보다도 한국의 실무와 법리,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직접 본사에 전달하고, 다국적 기업의 특수성이나 국제적 기준 등을 한국의 실무와 법리에 연계해 대응하는 크로스보더 변론이 그만이 갖춘 독보적인 역량으로 평가된다.

또 암참(AMCHAM) 세미나나 다국적 기업과의 프라이빗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의 수사환경과 트렌드 등을 그때 그때 소개, 외국 클라이언트들이 상시 자문 역할을 제안하거나 아시아 법무담당자 등과의 미팅 주선 등 자문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

검사 시절 조지타운 로센터(LLM)로 연수를 다녀온 그는 외국 우수 로펌의 화이트칼라 변호사들의 리운드테이블 모임인 Cambridge Forum에 초대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도 맡고 있다.

